



## 미 증시, 테이퍼링 지연 기대감 지속 등으로 강세

### 미국 증시 리뷰

23 일(월) 미국 3 대 증시는 8 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부진에도,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 후퇴 기대감이 지속된 가운데 미 FDA 의 화이자(+2.5%) 백신 전면 승인 소식이 투자심리를 개선시킴에 따라 상승 마감(다우 +0.6%, S&P500 +0.9%, 나스닥 +1.6%). 업종별로는 에너지(+3.8%), 경기소비재(+1.4%), 커뮤니케이션(+1.3%) 등이 강세, 유틸리티(-1.3%), 부동산(-0.4%), 경기소비재(-0.4%) 등이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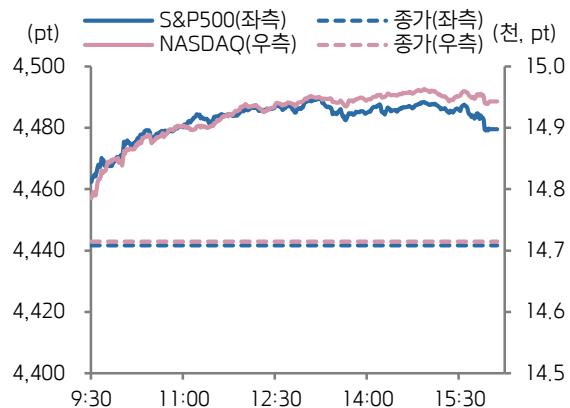
미국의 8 월 Markit 제조업 PMI 예비치는 61.2 로 전월(63.4) 및 예상치(62.5)를 모두 하회. 서비스업 PMI 예비치도 55.2 로 전월(59.9) 및 예상치(59.5)를 모두 하회. Markit 측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구인난과 비용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 유로존의 8 월 Markit 제조업 PMI 예비치는 61.5 로 전월(62.8) 및 예상치(62.0)를 모두 하회했으며, 서비스업 PMI 예비치도 59.7 로 전월(59.8) 및 예상치(59.8)를 모두 하회.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을 전면으로 승인하겠다고 발표. 이는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전면 승인된 사례이며, 그동안 안전성 등으로 백신 접종을 거부했던 미국인들의 백신 접종 속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 미국 증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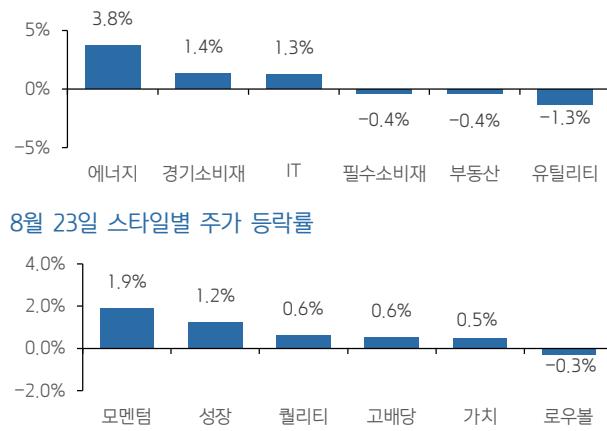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동반 부진을 통해 선진국들도 델타 변이 확산에 영향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그러나 이 같은 지표 부진은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을 낮춰주면서, 그동안 경제 상황을 놓고 벌어졌던 연준과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간극(실물 경제 둔화 VS 긴축 의지 강화)을 좁혀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 화이자의 백신 전면 승인으로 미국 내 백신 접종률이 가속화됨에 따라, 추후 델타 변이 확산이 경기 회복 경로에 제한적인 영향만 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 이는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장이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완전히 늦추는 것이 아니라,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테이퍼링 시점과 속도를 지연시키는, 즉 시간 벌어주기 성격으로 정책 변화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S&P500&NASDAQ 일중 차트(8월 23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8월 23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61%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52%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7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69.3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체크 사항

- 원/달러 환율 급등세 진정에 따른 외국인 수급 호전 여부
-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2.6%) 상승에 따른 국내 반도체주 투자심리 개선 가능성
- 미국 백신 접종 확대 가능성에 따른 경제 재개방 관련주들의 투자심리 회복 여부

##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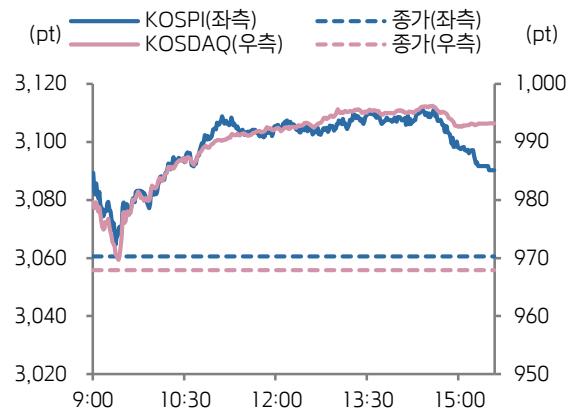
23 일(월)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매파 성향 딜러스 연은 총재의 테이퍼링 지연 발언, 국내 8 월(~20 일) 수출 호조 소식으로 위험선호심리가 회복된 가운데, 지난주 급락세 과도 인식 확대에서 기인한 저점 및 기술적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1% 가까운 반등세로 마감(코스피 +1.0%, 코스닥 +2.6%). 대부분 업종이 동반 강세를 보였으나, GM 의 1 조원대 대규모 리콜 발생에 따른 LG 화학(-11.4%)의 주가 급락으로 화학 업종이 2% 넘게 급락하며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임.

업종별로는 증권(+3.0%), 의약품(+2.8%), 통신(+2.6%) 등이 강세, 화학(-2.3%), 의료정밀(-2.9%), 은행(-0.9%) 등은 약세.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개인이 311 억원, 5,723 억원 순매도, 기관이 6,099 억원 순매수를 기록.

## 한국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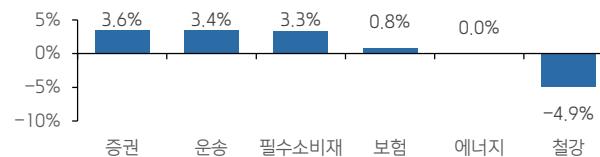
한국 증시는 미국발 호재성 재료(조기 테이퍼링 지연, 화이자의 백신 전면 승인 등)에 힘입어 상승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전거래일에 이어 최근 2 주간 급락세가 과도했던 인식으로 기술적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 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 둔화에 따른 중국발 수요 회복 기대감도 재차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음.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도 진정되고 있음을 감안 시 외국인 수급 여건도 점진적으로 호전될 전망. 또한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낙폭이 덜했던 반도체 주가 흐름에서 볼 수 있듯이,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불안감이 완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 같은 반도체 업종의 주가 하방 경직성은 추후 증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되는 구간에서도 전반적인 증시의 하단을 지지해줄 것으로 예상.

### KOSPI & KOSDAQ 일중 차트(8월 23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8월 23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8월 23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